

네덜란드 건축연구소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글. 이지현 Lee, Jihyun
jihyun.lee815@gmail.com

이번에 소개할 건물은 네덜란드 건축사 Jo Coenen-쥘 코에넨-이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연구소 NAI-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이다. 건축연구소 NAI는 네덜란드의 건축의 아카이브를 포함한 도서관, 전시공간 등을 제공하는 건물로 네덜란드에서 저명한 건축그룹 6팀을 초대해 공개현상을 거쳤으며 최종 당선작으로 Jo Coenen의 계획안이 선정됐다. 설계는 1993년부터 시작해 건축물은 1999년도에 완공됐다.

네덜란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축그룹 OMA나 MVRDV 외에도 여러 뛰어난 건축사들이 실험적인 건축 및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현대 예술의 모더니즘 뿐만 아니라 건축의 모더니즘에서도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Aldo van Eyck와 Berlage, Herzberger 등의 거장들은 사회와 건물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던 도시, 건축적 역사 때문인지 도시 안에서의 건물, 건물과 건물 군집이 이루는 영역·도시와의 관계, 그들의 형태적·기능적 일관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 시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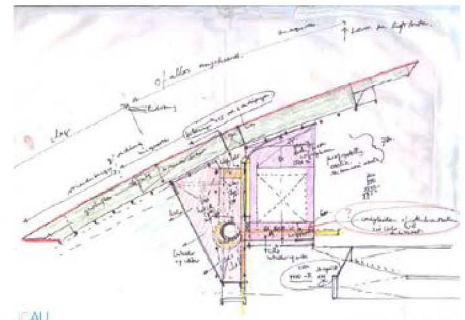
이번에 소개하는 Jo Coenen도 건축사인 동시에 도시 계획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건물을 디자인할 때 Urban Form-도시의 형태-를 형성하는 노력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건축연구소

로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역사적인 도시 중 하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 도시 전체가 파괴되는 등의 수난을 겪었고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도시재건작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새로운 스카이라인과 모던 도시 중심의 Urban Form-형태-이 잡히기 시작했다.

로테르담 중심에 위치한 건축연구소 NAI는 언뜻 보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 동의 건물군처럼 보인다. 벽돌로 지어진 박스형 건물은 이미 존재했었고, 이 외에 공간을 설계해 연구소를 확장해야 했다. Jo Coenen이 주장한 아이디어는 NAI를 짓는데 있어 도시 형태를 다시 잡아가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Jo Coenen의 NAI 계획안 © www.jocoenen.com

1. 첫째로 네덜란드의 어느 도시처럼 물길이나 지나가는 길의 종결점에 사이트가 위치해 있다. 물길을 연속시켜면서 종결하는 공공적 장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이트는 건물과 길의 리듬이 깨지는 입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도시적 갭을 메우는 매스가 필요하다.
3. 사이트의 바로 앞 쪽에는 역사적인 Boijmans 박물관이 위치하며 이는 빨간 벽돌로 지어졌다.



NAI에 사용된 Expanded Metal Mesh

사이트가 포함하는 이미 존재하는 건물동도 같은 빨간색 벽돌로 지어졌다. 빨간벽돌 마감재와 건물의 매스감은 시각적으로 한 영역을 이루며 이미 일관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Character-특징-있는 매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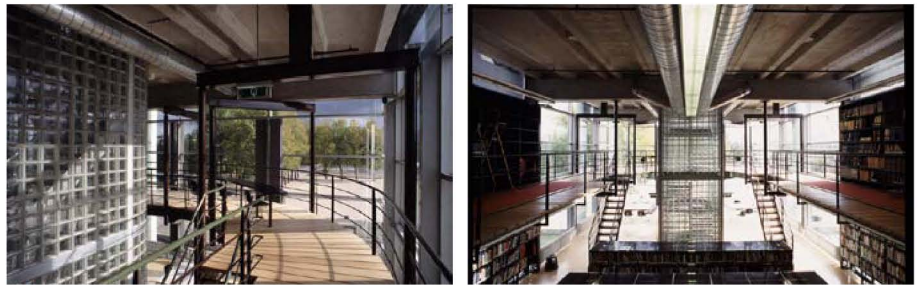
그러므로 Jo Coenen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이어간다.

1. 도시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남쪽의 Rochussenstraat 도로로 새로운 도시의 벽을 만든다. 바나나 모양으로 콘크리트 매스를 길게 형성해 이미 남쪽으로 형성된 주거 집합군들의 매스와 쌓을 이루며 동서방향으로 길을 만든다. 동시에 도로레벨에서는 북쪽과 이어지게 하여 도시 전체로 써의 유기성을 꾀한다.
2. 반대편에 위치해있는 Boijmans Van Beuningen 박물관과 균형을 이루는 상자 모양의 건물 동은 도시의 축-펜던트의 역할을 한다.
3. 가장 특징적인 스틸 캐노피에 의해 지지되는 유리상자 건물동은 도서관 및 행정 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는 동으로서 주변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높이 또는 구조적 특이성으로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유리상자를 받치고 있는 매스가 있다. 이는 유리상자를 랜드마크로서 돋보이게 하기 위한, 또는 다른 매스들과의 연결고리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하며 기념비적인 건축적 상징을 한껏 강조한다. 이 매스는 카페와 강의실을 수용하고, 천정고가 높으면서 벽이 없어 다양한 전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5. 이렇게 네 매스들이 독립적이면서 밀집하게 모여있는 형상은 도시 형태의 로직-logic-에 기여하며 그 자체적으로도 Ensemble-양상불-을 이루며 로테르담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건물에 쓰인 내·외장 재료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매스들을 독립적이며 서로 명확하게 대비돼 보이도록 쓰였다. 기존 건물은 적벽돌로, 바깥에서 건물동에 접근할 때 주춧돌 역할을 하는 길다란 매스는 Expanded Metal Mesh로, 그리고 바나나형의 매스는

골강판과 콘크리트가 대비되며 각 개체를 돋보이게 한다.

Expanded Metal Mesh는 외부와 내부를 관통하면서 사용되어 이것이 매스들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인지성을 강조한다. Mesh의 밀도는 수직적으로 달라지는데 시야범위에서 꽤 느슨하다가 스펠드럴 영역으로 갈수록 조밀해진다. 이러한 메탈 메쉬는 일차적으로 햇빛의 양을 각각의 계절에 맞게 조절하면서 실내에 들어오는 조도를 조정하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한번 걸러주는 기능이 있다. 실내는 대부분 메탈과 잘 어울리는 노출콘크리트 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메탈의 거친 질감은 유리를 통해 보이는 반대쪽의 바나나 모양의 매스 건물동 외장재인 골강판으로 이어진다.



재질 고유의 느낌을 살린 철골 기둥 및 브레이싱

© www.jocoenen.com

주 구조 역할을 하는 철골 기둥 및 브레이싱 등은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했으며 고유의 색을 살려 주변의 콘크리트와 대비를 이뤄 구성주의를 연상케한다. 이러한 거친 느낌을 무마하듯, 패브릭이나 나무 등의 따뜻한 색과 질감이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부분적으로는 바닥면을 형성하며 완전히 열린 공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주목할 것은 재료의 사용 뿐만 아니라 도시와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공간감-스케일감-이다. 즉, 도로에서 진입할 때, 건물 앞쪽으로 잔잔히 흐르는 연못에서 하늘과 맞닿은 광장에서 있을 때, 세계층을 아우르는 아트리움(수직적)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바나나 형태의 아카이브(수평적)에 있을 때 등 느낄 수 있는 공간감들은 도시의 형태를 만드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훌륭한 디자인이 아닐 수 없다.

Vertical Connection

